

# 성도의 빛 7

1971



# 영감의 메시지

엘마 손 장로  
(12사도 정월회 보조)



요셉 스미스는 19세기의 찬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위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신도들이 교회의 규율을 어기고 영원한 복음을 멋대로 바꾸었다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24 : 5 참조) 이러한 그의 외침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일성도에게 부과된 책임은 회복된 복음을 세상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회복된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마음 속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된 일년 후에는 이미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시작했고 개중에는 돈지갑이나 전대도 없이 다니며 (누가 22 : 25 참조) 하나님의 회복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선교 정책을 통하여 일찌기 이 세상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으로도 손을 뻗었습니다. 반대하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폭도가 대적하고 신문이 비난의 기사를 실기도 했으며 박해가 작은 시절의 교회를 맹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어린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예언한 대로 록키 산맥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은 앞으로 끝없이 발전하며 온 세상에 채워지도록 (다니엘 2 : 35 참조) 성장할 것이며 아무도 이 행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교성 38 : 22 참조)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7월 1일  
통권 제72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흥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 제 7 권 제 7 호 순 서 1971년 7월호

■권두언■ 개척자 정신 죠셉 필딩 스미스 .....	1
예언자의 유산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	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인간성 레오나드 제이 애링톤 .....	7
상호 협조 : 가정과 교회의 목표 윌리엄 지 다이어 .....	11
죤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에디스 에스 패트릭 .....	15
폭동의 바다 아이리스 신더가드 .....	16
청년 요셉 스미스 제임스 알렌 .....	19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칼라 샌숨 .....	22
테리오테마나와 퓨나 돈, 진 마샬 .....	27
기억해야 할 생일 해롤드 비이 리 .....	29
선교부장 메시지 : 끝까지 견딤 서 현보 .....	30
내외 소식 .....	31

표지 설명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조부인 아사엘 스미스는 그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편지를 썼다. 1799년의 모습을 재현시켜 주는 이 달의 표지는 엘던 린쇼튼이 촬영했다. 3페이지에 실린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의 "예언자의 유산"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권두언 ■

# 개척자 정신

대관장 죠셉 필딩 스미스

●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지 않고 다른 시대에 살았으면 어떠했을까에 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어떤 위업을 남겼을까요? 그때 그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시대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중에 성취하고 있는 일 그것이 곧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칠월은 우리가 개척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달입니다. 저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은 어디에 살던지 저들이 쌓은 터 위에 우리의 힘으로 큰 것을 이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쉴트 레이크의 기름진 땅을 지나 여행하는 길손들은 가꾸어진 들을 내다 보고는 “이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니까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영주할 땅으로 택하셨겠지요”라고 말합니다.

때는 봄이었습니다. 들에는 가을의 수확을 약속하는 초록의 수목이 풍성하였고 길 옆에 늘어선 과목의 꽃은 만발하여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들은 온통 차고 넘치는 추수의 영광을

암시하는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유태를 가로 질러 급히 여행하는 사람들은 유태의 비옥한 토지와 환경을 얼핏보고 브리감 영 대관장이 이곳을 옥토였기 때문에 택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개척 초기의 미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며 개척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기우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도록” 하고 “사마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도록 한 그 노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5 : 1 참조)

1847년 7월 24일 솔트 레이크 대협곡에 도달한, 강한 투지로 단합되었으나 그러나 소수의 개척자들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땅은 햇빛에 구어진 빵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골짜기를 덮은 세이지 잎과 염해에서 자라는 풀 몇 포기 그리고 몇 그루의 버드나무를 제외하면 수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풍경은 황량하고 쓸쓸했습니다. 개척자들은 땅을 갈아보겠다고 나섰으나 오래도록 버려졌던 이 땅은 험사리 개척자의 손길에 길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골짜기로 흐르는 냇물을 끌어다 대고 땅을 흔건히 적신 후에야 비로서 땅을 갈아 저들이 지니고 온 얼마 되지 않는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극한 상황에서의 굶힐 줄 모르는 투지의 전쟁은 이어졌고 황무지를 옥토화하겠다는 노력은 마침내 근대 경작법을 개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대 문명의 손길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곳에 살게 된 이들은 지도자로부터 소비한 만큼의 물자를 생산해야 한다는 교훈과 모든 물건을 각별히 아껴 써야 한다는 교훈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아직도 이 교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값진 것으로 기억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내 공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다 얻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사치와 낭비를 금하므로써 생활의 균형을 찾으라고 하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권고에 쫓아 성도들은 여러 가지 가내 공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모직업, 철공, 목공, 제혁, 제분, 도자기업 등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법을 터득하였고 요구되는 도구를 준비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저들의 의복은 간결하게 지어졌으며 작업에 알맞도록 튼튼했으며 이의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세상 형편은 정신적인 단합을 파괴하려 하며 개인이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안식하려 하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정신적인 분위기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과 노력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과장하여 생각하는 풍조는 점점 비대하였고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은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단합이 없는 곳에 상호 협조란 있을 수 없으며 목적이나 생각이나 요구를 하나로 묶지 못하는 곳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전체를 위하여 일하기를 개개인이 거부하거나 돈에 대한 욕망과 세속적인 재물에 눈이 어두울 때 상호 협조는 어렵습니다.

개척자들의 생활을 복되게 하고 그 사회를 번창하게 하며 상호 유대를 견고하게 해 준 그 생활 방식을 놓치지 않도록 다같이 소망합니다. 형제애가 돈독해지며 상호 유대가 날로 긴밀하게 되도록 늘 간구하며 이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어 루이 이야기한 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룻기 1 : 16)하자는 것과 같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개척자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저들의 업적과 희생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때 그 날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을 격한 채 멀리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여 저들의 위업이나 업적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솔트 레이크 계곡에까지 오면서 겪었던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던 성도의 자녀로서 오늘날 교회에 머물어 있는 회원이나 혹은 엇그제 개종한 사람이거나 간에 우리 모두가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정신과 자세를 본받아 모범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바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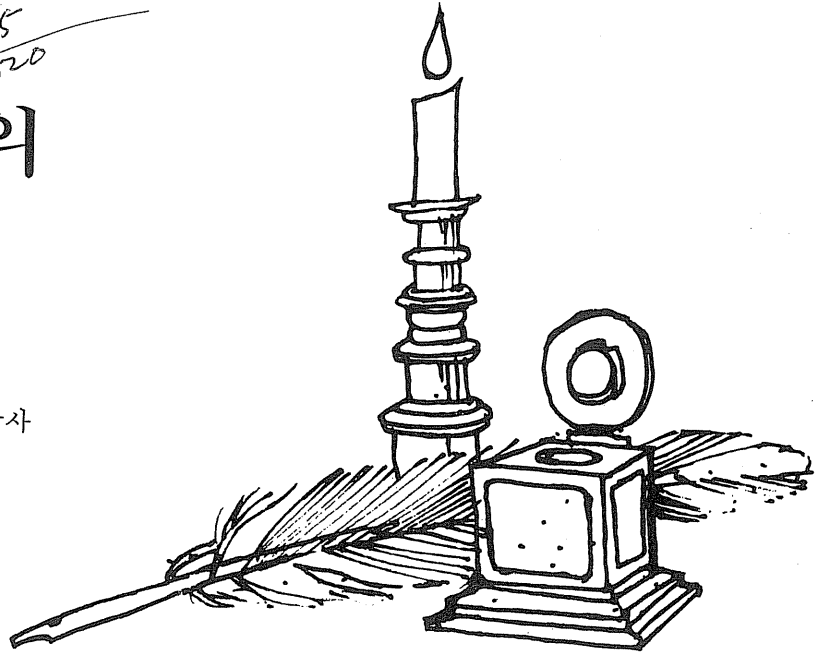
무관무한 ~~에서~~에서 난깃이다

170  
850

85000  
12  
170  
85  
1020

# 예언자의 유산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박사



●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자서전 기록에 보면 1805년의 그의 출생이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났으며 기독교를 내게 가르치시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다.”<sup>1</sup>고 되어 있다. 그는 훌륭한 부모님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들은 더욱 훌륭하지 않으셨나 생각한다. 그가 순교되기 바로 전 해에 그는 “어떤 형태의 다스림으로부터에서든지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기 자신에 관하여 “.....나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정신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가르치던 때로부터 나의 골수에 박히게 되었다.”<sup>2</sup>고 말하고 있다.

예언자의 청소년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조부모에게서 영향받은 이러한 사상의 모습을 찾아보게 된다. 예언자의 친증조 할아버지였던 사무엘 스미스는 자기 마을과 주의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공공 연설을 한 바 있다. 측근자들은 그를 “조국과 향토의 자유를 갈망하며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인물”<sup>3</sup>이었다고 평한다. 그의 아들 아사엘은 여덟 살 미만의 자녀 다섯을 가진 애기 아버지 군인으로서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애국 정신을 혁명 전쟁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근면한 농부로서 아사엘 스미스 할아버지는 여러 해를 두고 마사츄셋, 뉴 햄프셔, 버몬트 등 여러 지방에서 활약한

저명 인사였다. 그는 젊었을 때 지방 서기<sup>4</sup>로 일하였다. 그는 아들과 더불어 버몬트, 튜부릿지(요셉 스미스의 출생지)에 방대한 농토를 개간하였고 그곳에서 삼인으로 구성되는 지방 관리 역원의 일원으로 두번이나 선출되었다. 그는 또한 마을 자치회 회장으로, 고속도로 조사 위원으로, 참사관으로 각각 피임되었었다.<sup>5</sup> 튜부릿지에서 쓴 그의 편지 중에 열 한번째 계명이라하여 “자기의 사업에 일념하라.”고 쓴 내용에 그의 정치적 내지는 생활의 신조와 이념이 엿보인다.<sup>6</sup> 예언자의 “자유 수호 정신”이 그의 조부인 아사엘을 통하여 더욱

크게 다져졌다는 증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로 미국에서 비롯되는 자유의 물결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란다는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혁명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를 자유와 평화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가 정하신 때에 온 세상에 이와같은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실 것을 믿습니다. ....” 그의 정치에 대한 견해는 온전히 종교적인 것이었으며 아사엘은 “모든 군국정치와 종교의 세를 엮은 독선은 파멸할 것”이라고 다니엘 이서의 예언의 성취를 부르짖었다.<sup>8</sup> 그가 1830년에 죽기 전 물문경에 관하여 “무엇인가 세상을 개혁할만한 일이 가문에서 빛어질 것을 아는 까닭에 물문경은 참된 것인줄 안다.”고 한 이야기는 전혀 의외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sup>9</sup>

아사엘이 뉴 잉글랜드에서 조합 교회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그는 그곳의 원리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였다. 어린 십대의 몸으로 조지 에이 스미스는 늙은 할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이지에 빛나는 유쾌한 성품의 노신사”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반면에 할아버지는 요셉(1세)의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녀의 종교 즉 성약교, 조합교, 장로교에 참석하는 종교 자유를 지나칠만큼 방임해 두었고 죽음에 임박해서는 교리의 우주적인 회복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기록을 남겼다.<sup>10</sup>

위의 내용은 튜부릿지 마을 기록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 기록은 1797년에 발족한 범세계주의

회의 기록이기도 하며 이 회의 구성 회원은 아사엘 스미스, 제시 스미스(장남)와 요셉 스미스(예언자의 부친)였다. 범세계주의 제창자로서 이들은 소위 정죄 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이며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803년에 회의를 갖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사랑의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그가 한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은사로서 계시하사 마침내 온 인류를 행복과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sup>11</sup> 아사엘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일부분이라도 영원한 비참의 구렁으로 밀어 넣으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스미스 가의 가풍에 관하여는 추측이나 짐작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명백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 예언자가 태어나기 6년전 아사엘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라고 전제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 속에 그의 철학과 충고를 조심스럽게 기술하였고 그 글에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분신”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금을 주고도 못 바꿀 이 원본은(현재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음) 아사엘의 단독한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으며 아사엘은 여기서 참된 인간의 사실적인 도덕관을 명백하게 그리고 있다. 이 글은 1902년 아사엘의 3대손 이요 현재는 교회의 대관장이며 당시는 젊은 사가였던 손자의 손에 의하여 출판되었다.<sup>12</sup>

아사엘이 그 후손에게 전한 권고의 내용은 거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 및 부활의 권세에 대한 신앙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 글은 실제의 의로움과 정직과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은 허황된 사람이나 공상가들이 지어낸 이야기와는 그 내용이 판이하다. “하나님께 행할 때나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라도 철저하게 선을 다하라. 그의 이름이나 뜻을 더럽히지 말고 절대로 참된 것이 아닌 것을 그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오직 심오한 연구와 사려 깊음으로 행하라”<sup>13</sup>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자로의 철저한 책임감이 그의 글 한 구절 한 구절에 역역히 살아있다. 그는 인간으로의 허황한 사치와 가식을 배제하고 가족간의 사실적인 우의와 근면, 관용, 애국심, 하나님께의 감사를 강조한다. 아사엘은 “정직하고 공평한 방법 즉 생사와 진퇴를 의지할 그러한 방법으로” 만사를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sup>14</sup> 그가 주장하는 참 종교는 속이 빈 형식만으로서의 의식이나 치례가 아니며 오직 개인의 선함과 “두 사람의 견증인”으로 증거되고 “깊은 통찰력”으로 입증될 일들이었다. 이러한 부르짖음의 유산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아사엘 할아버지는 가족안의 가장들에게(요셉 스미스 1세도 당시에 가장이었음)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녀를 덕으로 인도하여 그 세대에서 유용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하라”<sup>15</sup>

1799년 아사엘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하여 가족에게 전한 글

에는 그의 자녀가 모두 덕으로 인 도되었음이 그려져 있으며 실제로 메리 듀티 스미스는 자녀를 덕으로 키우는데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였다. 그 아내에게 아사엘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성실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메리 듀티 스미스는 그의 손자 예언자의 부름에 참여하는 네 아들과 동석하던 때 이미 93세의 고령이었는데도 정력이 대단하였다. 엘리자 아아르 스노우는 그때의 그 “불타는 의지”에 대하여 뒷 사람에게 명백하게 전하였다.”<sup>17</sup>

요셉 스미스의 의조부의 글에서는 근엄과 높은 이상이 화강암처럼 돋보인다. 아사엘 스미스의 능력이나 이루움과는 달리 솔로몬 맥에게는 스미스가의 유산과 상응될 수 있는 인성의 빛남이 있었다. 그는 개척자로서 무척 험하고 위협스런 생애를 보냈으며 군인으로, 뱃사람으로 전쟁터를 치렀고 상인으로 농부로 세상을 살았다. 그러나 죽음의 때까지는 주님과 그의 접촉을 느끼지 못했으며 마음과 몸과 영의 상합을 당한 후에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개인이 받은 계시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솔로몬의 지도력은 탁월하지는 못했으나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의지의 소유자였다. 도서관의 분류인은 그의 자서전을 “행운과 파란 폭풍이 많은 뉴 잉글랜드의 야인”이라고 분류하였다.<sup>18</sup> 그의 전서를 읽는 사람이면 말할 수 없는 난관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영웅의 기개를 그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갑작스런 궁핍으로 인한 극한 상황 속에서 마치 팔려온 노예 처

럼 일해야 될 입장이었지만 일반교육이나 종교 교육마저 받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도 어린 일꾼 솔로몬은 부모에 대하여 늘 순종적이었다. 그는 다른 여럿과 더불어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불란서와 인도간의 위험한 전쟁터에서 몸을 던져야 했다. 엄격하고 치밀한 질서의 군대 생활에서 솔로몬은 나약함과 질병과 인간의 냉담함을 피부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전쟁중의 두 가지 사건(조지 캠프레인 호수에서 있었던)이 전쟁의 비참과 암담함에 대한 그의 견해와 성품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았다. 들소 등에 짐을 싣고 있는 소떼를 몰고가고 있을 때 그는 무장한 인도군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동료와 단 둘이서, 그것도 비무장으로 일을 당한 그는 자기 말대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략으로 저들을 속이는 길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큰 소리로 동료를 부르면서 그 근처에는 없는 여러 군인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며 앞으로 곧장 돌진해 나갔다.

“내게는 무기가 없었지요. 막대 하나를 들고는 전투 지휘를 한 겁니다. 적은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도 속으로는 애가 났습니다”<sup>19</sup> 이러한 강한 담력과 의지는 그대로 그의 예언자 손자에게도 전해졌으며 예언자가 뉴욕에 있을 때 그는 그의 강철같은 담력 하나로 사나운 폭도들의 난동을 제압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전쟁 에피소드는 솔로몬의 남을 위한 희생 정신을 잘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뉴욕 티콘더고의 시원치 않은 경비만 크게 투입

한 전투가 있는 얼마 후에 약간의 병력이 자체 범위를 위한 매복의 임무를 받아 순찰에 나섰다. 솔로몬 맥은 이스라엘 포트남 중대와 함께 선두에서 행진해가고 있었다. 이때의 적의 기습으로 포트남은 포로가 되었었고(후에 기적적으로 생환되었음) 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면 “적군은 구름 떼처럼 몰려 들어 사격을 가해왔다... 탄환과 포탄이 온통 내 곶전을 화산이 터져 나오는 불탄 돌처럼 스쳐날랐다.”<sup>20</sup> 이런 때는 즉시 후퇴하여 병력을 재정비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일각 일초를 계산해야 하는 위험한 지경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남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급히 달려다가 한 쪽 옆에 부상을 입고 넘어진 자를 발견했다. (인도군은 근처에까지 와 있었다) 나는 즉시 달려가 그를 들쳐 업었다”<sup>21</sup>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중대장 로저 소령은 미국인의 그 “결단과 용기”가 기습을 감행한 적을 무찌른 원동력이 되었고<sup>22</sup> 그 공은 당연히 솔로몬 맥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고로 다리를 절름거리면서도 솔로몬은 육지에서, 바다에서 사병의 몸으로 열심히 혁명 전쟁에 이바지하였다. 전리품과 민간 이득도 생활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그의 너그러움만으로 타개하기에는 너무 큰 고난이 닥쳤고 “여러 사람을 돌봐 주느라고”<sup>23</sup> 그는 곤궁에 빠지게 되었다. 그가 노인이 된 후(그의 손자 요셉이 여섯살이었을 때) 수많은 재난, 말하자면 사고, 질병 등이 노년의 솔로

## 참 조

몬에게 들어 다쳤고 그리하여 그는 기도로 주께 간구하였으며 자기가 얻은 신앙을 지키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쾌되었다는 간증을 하였다.

그의 고난의 이야기는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큼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들 한다. 그런 후에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또 얼마나 극진했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뜻으로……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니, 모든 것은 아름다웠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훌륭하시다”<sup>24</sup>

솔로몬 맥은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기는 어렸을 때 충분히 받아보지 못한 도의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한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주가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기르겠다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일을 저지르도록 버려두지도 말며 꼭 성취될 일만을 약속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말로나 행함에 있어서 늘 좋은 모범을 보이기 바랍니다.”<sup>25</sup> 그가 비록 만년에 기독교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으나 그는 평생을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훌륭한 자녀를 낳아 길렀다. 자기의 개종이나 자녀의 교육에 대한 아내의 노고를 그는 성경을 이해하는 “유일의 선생”<sup>26</sup>이라고 격찬하며 치하한다. 외딴 개척자의 농원에서 라디아 케이트 맥은 출신하여 자녀의 영적인 자세와 정신력을 기르도록 애썼던 것이다.

“아내는 보통 학과만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불러 기도를 가르쳤고 서로 사랑할 것과 온 땅을 지으신 이에 대하여 헌신하겠다는 뜻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녀는 우애와 온유와 관용을 배웠고 똑같은 것을 그 뒤에 오는 자녀에게 가르쳐 행복의 문을 열었습니다”<sup>27</sup>

아사엘 스미스와 솔로몬 맥, 그리고 이들의 아내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 면에서 요셉 스미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첫째로 예언자의 부모는 스미스가와 맥가의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예언자가 직접 할아버지에게서 그가 투쟁의 목적으로 자유의 참값을 배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두 할아버지의 이상과 인품을 어린 요셉 스미스는 부모에게서 배워 이를 존경하였다는 사실이다. 라디아 케이트 맥 할머니는 실제로 요셉 스미스가 죽이 1816년 서부 뉴욕으로 옮기기 전 얼마 동안을 함께 살았다. 예언자와 루시 맥 스미스는 함께 서부로 옮기는 초기에 할머니와 함께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 헤어지면서서 루시 맥 스미스에게 “하나님을 끝날까지 섬기어 이 다음 세상에서 서로 기쁘게 만나자.”고 한 그의 “마지막 권고”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었다.<sup>28</sup> 높은 이상과 종교의 이념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린 예언자의 자질을 거부할 사가는 없을 것이다. 요셉 스미스의 할아버지가 가지셨던 예지와 충명이 오래도록 전해지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

1. 1832년 ‘역사초. 제시 확장, “요셉 스미스의 첫 번 시련의 초기 역사” 브리감 영 대학교 연구. 제 9권 (1969년봄) 279페이지. (내용중의 어미의 혼돈은 문법에 의거 수정하였음)
2. 요셉 스미스의 일기, 윌라드 리처드 보관 1843년 7월 9일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샬트레이크시 1909, 제5권 498페이지)
3. 샬렘 계제트. 1785년 11월 22일
4. 조지 왈도 부라운 참조 (페리 필드 마을의 초기 역사, 현 만체스타, 만체스타 역사 수집 위원회 제 8, 9권, 1779년~1786년 사이)
5. 버몬트주 오렌지 지방의 지방 기록 참조, 툴부릿지 마을 기록, 유타주 샬트레이크시 계보 도서실 마이크로 필름
6. 버몬트 툴부릿지 제이콥 마을로 보낸 아사엘 스미스의 편지, 본문 내용은 엑세스 연구실의 원본과 상위 없음. 내용에서의 철자의 수정은 가하였음, 서부에서의 첫 번 인쇄는 조지 에이 스미스 씨가 감수함, 1872년 7월 6일 데저렛 뉴스.
7. 같은 책
8. 같은 책
9. 조지 에이 스미스. 1857년 8월 2일 저널 오브 디스커스(1858) 102페이지
10. 1870년 5월 31일 샬트레이크의 에이치 구드 박사에게 보낸 조지 에이 스미스의 서한, 4페이지
11. 에이 비이 그로쉬 저 “우주 주의자”
12. 요셉 필딩 스미스 “톰스필드의 아사엘 스미스와 그 가족의 역사”
13. 같은 책 92페이지 원본과 상위 없음.
14. 같은 책 94페이지
15. 같은 책
16. 같은 책
17. 에드워드 더블류 툴리지 저, 물문 세계의 여인(뉴욕 1877) 98페이지
18. 루이스 캅플란 미국 자서전 서지학(위스콘신 메디슨 1962) 188페이지
19. 솔로몬 맥. 솔로몬 맥의 생애(윈드소 1811) 6페이지
20. 같은 책 엑세스 역사 기록 수집 연구소 7권 (1865) 100페이지
21. 맥. 구전 6페이지
22. 로버트 로저 소령의 일기(런던 1765) 118페이지
23. 맥. 구전 17페이지
24. 같은 책 23—24페이지
25. 같은 책 24페이지
26. 같은 책 20페이지
27. “솔로몬 맥의 일기”
28. 루시 맥 스미스 69페이지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인간성

레오나드 제이 애링튼 박사

● 회복을 가져다 준 예언자를 한마디로 철학도요, 지역 사회의 개척자요, 군의 대장이요, 시현의 사자라고들 한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은 요셉 스미스는 지칠 줄 모르는 정열적인 일꾼이었던가 다정다감한 면도 갖고 있었다. 재물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태도는 복음 회복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의 성품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보겠다.

요셉 스미스는 비교적 궁핍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으며 특히 가족간의 유대는 따뜻했으므로 일찍부터 가정에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 준다. 요셉의 가정과 예언자의 모친 루시 스미스를 아는 사람은 그 가정의 따뜻했던 모습을 한결같이 전한다. 스미스의 가족은 함께 꿀을 따기도 했고 이웃을 돕기도 했고 난로가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며 근처 마을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물러 가기도 했다.

예언자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부모를 생각하는 알뜰한 효심이 엿보이는

일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다리에 수술을 받을 때 그는 자기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의 모친께 밖으로 나가 계시라고 간곡하게 간청했으며 1830년 그의 부친이 칩제를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고 부모가 병중에 제실 때는 오래도록 그 곁에서 간병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부친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어머니의 영혼이 온통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니 나의 어머니가 복을 받으시기를…… 또한 나의 부친도 복을 받으사 주님의 팔이 그를 감싸 주시기를—” 1835년에 그는 “경험과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권고와 충고의 말씀을 들려 주실 수 있는 부모님과 유대를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나고 말씀하기도 했다. 거처가 정해지고 성도들이 모이면 예언자는 곧 그 부모의 처소를 마련케 하여 부모님과 유대를 나누며 권고와 충고를 듣는 축복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 요셉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선교사들에게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어린 사람에게 칩제를 주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런 일

이 있었다. 1834년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군대는 앞으로 나아가 시온을 구하라”는 기치를 내 세웠을 때 존 릭스라는 십대의 소년이 그 부모가 반대하는 데도 운동에 참가할 뜻을 가지고 요셉 스미스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이때에 요셉은 그 소년에게 “네 부친께로 돌아가 네가 스물 한 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제 나아가 시온을 건설하는 일에 참가한 사람이 받는 모든 축복을 허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요셉 스미스 일세 곧 예언자의 부친의 협력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고 온 가족이 기쁨과 열의로 회복의 작업을 도왔으며 특히 요셉과 하이람의 사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절친하였다. 그들은 거의 떨어져 있는 때가 없었다. 둘 중에 혼자서 만은 온전한 존재의 뜻을 갖지 못하는듯이 보였다. 요셉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이람을 사랑했다.” 또한 스미스가의 친구인 윌리엄 테일러는, “둘이 얼마나 자주 만나던지 아니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더라도 둘은 차고 넘치는 성령의 권세와 기쁨의 은

사로 서로 대하였다”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사랑과 우애로 충만한 속에서 요셉은 1827년 엠마 헤일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 가정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유대는 그후 십 칠년 요셉이 암살 당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요셉이 엠마에게 쓴 편지라던가 엠마가 요셉에게 쓴 편지, 요셉의 일기, 기타 공식 기록에 보면 요셉이 가정에 얼마나 충실 하였으며 또 그의 가족은 그에게 얼마나 헌신과 사랑으로 협력하였는가를 똑바로 알아볼 수 있다. “내가 빵 한조각과 밀크 한잔을 원하는 때라도” 요셉이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한 말이다. “나의 아내는 진수 성찬을 내게 준비해 주어 나를 즐겁게 해 주었오”

물론 다른 부부들처럼 예언자와 엠마도 때로는 의견의 대립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의견의 대립이 심각할 때는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구했다. 결혼 얼마 후 이들이 휘트머 집에 유하던 어느 날 아침 요셉과 엠마는 서로 “언짢은 말”을 나누었고 요셉이 이층으로 번역하러 갔을 때는 온통 “모두가 암흑”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예언자는 숲으로 나가 기도하였고 돌아와서는 엠마에게로 가 사과하였다. 그가 다시 일하려 했을 때 번역은 순조롭게 행진되었다. 결혼 몇년 후에 사람들이 예언자를 위한 시가 행진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엠마는 요셉의 복장이 정장이 아니라고 불만의 뜻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당장에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요셉과 엠마의 첫 아이인 엘바는 펜실바니아 하모니에서 아직도 요셉이 번역에 매여 있을 때 죽었다. 엠마는 두번째 임신을 했고 쌍둥이 태디우스와 루이사를 낳았으나 모두 생후 세 시간만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예언자는 바로 그날 존 머닥크 자매가 쌍둥이를 낳고

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아이들을 입양시킨 다음 이름을 각각 요셉과 주리아라고 하였다. 그 후 쌍둥이는 홍역에 걸려 앓았고 요셉과 엠마는 밤을 새워 이들을 간호하였다. 하루 밤은 엠마가 몹시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은 자기가 상태가 더 심한 남자 아이를 돌보고 있을테니 병세가 좀 낫은 여자 아이를 데리고 “쉬라”



고 해서 보냈다. 아이가 울고 보채는 복세에도 요셉은 그대로 잠에 취해 침대에 쓸어져 버렸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살인자!”라고 소리지르는 엠마의 함성에 예언자는 잠을 깬고 수십명의 폭도에게 문으로 반쯤 끌려간 자신을 발견하였다. 폭도들이 열어놓은 문으로 몰아찬 찬 바람이 아키에게 치명적인 증세를 안겨주었고 그뒤 며칠만에 남자 아이는 죽었다. 그러나 주리아는

약 오십세를 살았고 요셉이 주리아를 극진히 사랑하여 엠마에게 보낸 편지에 주리아에 대한 사랑을 거의 빠짐없이 적었다.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폭도의 습격과 고난과 재판과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요셉은 그의 아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머씨 톰슨은 이러한 예언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그가 그의 아내의 머리 밑에서 병 간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사랑과 정성으로 그녀를 대하였고 그 극진한 마음씨를 주변의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읍니다” 그가 1838년에서 1839년에 걸치는 수개월 동안 미주리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는 엠마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 “나는 어린 것들(주리아, 요셉, 프레드릭, 알렉산더)을 늘 생각하게 된다고. 내가, 아빠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전해 주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시기를 빌고 있오……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면—하나님의 은혜로—우리가 다시 하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목이 메이는 것같소”

요셉과 엠마의 여섯번째 아이인 돈 칼로스가 1841년 십 사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자 예언자는 이웃에 사는 맥인타이어 자매의 쌍둥이 딸 중에 하나를 양녀로 달라고 간청하였다. 애기 엄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마침내 예언자에게 매일 밤 아기를 데리고 방문해 줄 것을 전제로 승락했다. 마가레트 맥인타이어는 후에 이렇게 술회하였다. “그는 매일 저녁 애기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와서 애기를 데리고 갔읍니다. 하루 저녁은 애기를 데리고 그가 올 시간이었는데도 오지를 않아서 우리 어머니가 예언자의 저택으로 가보았

입니다. 가서 보니 예언자가 애기를 비단 포대기에 잘 싸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추스리며 떠나기 전에 조용해야 한다고 어린 것에게 노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애기를 안자 이내 울음을 그쳤고 예언자는 우리 어머니를 동반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애기를 데리러 왔을 때 어머니는 아이를 바꾸어 내 주었습니다. 둘은 쌍둥이라 남들은 구별하지 못할 만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애기를 내어주자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 애는 우리 아이 메리가 아닌 걸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요람에서 메리를 내어주자 그는 ‘자랑스럽게’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부인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들러 그와 놀아주곤 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였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제 소개하는 1834년 3월 27일자의 일기와 같은 내용의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오늘은 집에 남아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다.” 요셉의 먼 사촌인 조지 에이 스미스에 의하면 교회로 개종하여 동부에서 커틀랜드로 이사온 어떤 친척 하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번역 일을 하던 이층에서 내려오며 아이들과 쉬어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예언자의 행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예언자의 일기에 보면 예언자가 가족과 더불어 음악 연주회에 간다든가 써커스 공연에 갔다는 기록이 눈에 띄고 함께 미시시피강에 보트를 띄우고 뱃놀이를 즐겼다는 기사도 있다. 가족은 또 자주 난로가에 둘러앉아 가정의 밤을 즐기며 책을 읽는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함께 공부를 하든지 하였다. 18



43년 2월 8일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오후 네시에 운동도 할겸 어린 프레드릭을 데리고 썰매를 지치러 밖으로 나갔다.”

이러한 기사는 요셉의 따뜻한 인간성과 친근성 그리고 남의 입장을 깊게 이해하고 도우려는 그의 성격의 일면을 잘 설명해 준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 그가 커틀랜드에 있을 때 마차를 타고 그를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을 때 “그는 여러 마차를 일일이 찾아 다니며 따뜻하게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특히 어린이와 갓난 아이들에게 더욱 신경을 썼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축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사랑했고 갓난 아이를 통하여 완전한 인간상을 내다 보는 것 같았다.”

에바린 버딕크 존슨은 그가 어린 아이

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는 동안 마루 바닥 한가운데에 싸두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어린 소녀는 어떤 남자 어른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올려다 보았다. 키가 큰 미소를 담은 얼굴이 보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건넸고 어머니는 그에게 들어 오라고 했다. “그가 나를 보자” 소녀는 말을 이었다. “끌어 올려 왼 팔에 안고 방을 가로질러 큰 거울 앞으로 갔어요. 우리는 함께 거울을 드려다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가 방을 나가자 어머니는 나를 불러 방금 나를 안아준 분이 주님의 예언자였다고 했지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당시에 그는 사업 관계로 어떤 사람을 찾아 갔다가 그집 아이가 목병으로 목이 통통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나를 안아 올렸어요.” 그때의 어린 아이가 후에 이렇게 그때를 회상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내게 성별된 기름을 부어 주시며 축복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낳았어요. 그후로는 아프지도 않았고 통증도 깨끗하게 가셨지요.”

남의 처지를 살피는 요셉의 온정과 저들의 복지를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또 어른이 된 후에도 레슬링을 좋아했고 자주 “막대 잡아다리기” 놀이를 즐겼으며 또 젊은이들과 경기를 갖기도 했다. 그는 “쉬지 않고” 순회를 계속했으며 가끔씩 동반자를 위해 농담도 하면서 “가난한 친구들과 놀 자리를 같이” 했다. 참으로 그에게는 “낮선 사람이 따로 없었다.” 많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처럼 예언자도 자주 노동 일을 했다. 그의 일기에 보면 하수구를 파냈다가 도착한 사람들의 집을 날랐다가

나 사과를 따다거나 정원을 가꾸었다거나 감자를 캐다거나 나무를 운반했다거나 기타 노동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수두룩하다.

하루는 앤드루 워크맨과 몇몇이 예언자 집 근처 담장에 걸터 앉아 오후의 한때를 즐기며 예언자와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건너 마을에 사는 가난한 동생이 지난 밤에 집을 불에 태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픈 낯색으로 일이 그렇게 된 것을 안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위안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손을 주머니에 찌른 다음 나는 이 형제에 대하여 5불만큼 안되었다는 생각을 하오.”라고 말하고 5불을 그에게 건네주며 “당신들은 얼마큼 안되었다고 생각하시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가 순교 당하기 바로 전에 나부 구역 회원으로서 시의 방위의 책임을 맡게 된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비가 나리고 있었고 길은 형편없이 질었다. 칠십 오명 중에 여덟만이 길을 걸었고 일행이 도하한 곳의 수심은 허리에 찰 정도였다. “우리가 나부에 도착한 것은 아직도 해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의 상황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신전 근처 포스터씨의 벽돌 집 앞에 천막을 쳤고 짐은 길 옆에 두었었어요. 내가 짐을 보고 있는데 예언자 요셉이 통나무 위로 올라서며 내게 손을 내밀었지요. 그리고는 그의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나를 끌어 올려 통나무에 세우고는 타고 온 말을 한 쪽으로 밀고 나를 통나무 한쪽 끝으로 한 발자욱씩 이끌고 갔어요. 통나무 위에 내 발을 옮길 때마다 찍힌 핏 자국을 보고 그는 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나는 나무 끄트머기를 잘못 밟

아 신이 찢어지고 발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곧 나올거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얼굴로 가져간 그의 손이 젖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는 ‘나의 사랑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소서, 라고 말씀하시고는 일행 중에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자가 있느냐고 물었지요. 나는 여러 명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그는 래드립처럼 가게로 향하여 짐을 옮겼고 안에다 대고 ‘이 사람들이 신을 구두를 줌 내 주시오’라고 했어요. 래드립씨는 ‘구두는 없는데요’라고 했고 요셉은 급히 말을 받아 ‘그럼 긴 장화라도 주시오’라고 하시고는 내게로 몸을 돌려 ‘조니, 아마 다른 일행은 모두 흩어져 집으로들 돌아간 모양이야. 카페지로 가서 주지사의 처분을 기다리며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게 몸을 기대고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짚으시고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스라엘이 화평 중에 승리하는 것을 너는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또 요셉의 조용한 영웅으로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다. “1837년 여름 어떤 저녁에 오하이오 북쪽 페인스빌이라는 작은 마을에 나그네 두 사람이 친구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일이 있었다. 이들이 막 식사를 끝냈을 때 난데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한 떼가 몰려와 분노의 고함을 지르며 살기를 띄운 소리로 집 주인에게 찾아온 손님을 내 놓으라고 했다. 집 주인은 친구들을 은밀히 뒷 문으로 내보낸 후 어둠 속 멀리 피하도록 했다. 두 사람이 몸을 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몰려온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달아났음직한 길을 따라 말을 달렸다. 조명탄이 울랐고 파수가 세워졌고 온 마을은

말할 수 없이 소란해졌다. 두 사람은 대로로 달아날 만큼 우둔하지는 않았다. 들은 숲 속으로 폭도들이 올린 조명탄에 도움을 받으며 늪지와 숲을 헤치며 갔다.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행 중 하나가 놀라움과 피로에 기진하여 넘어졌다. 그의 동반자는 그를 버려두고 혼자 달아나 그를 피에 주린 폭도에게 잡히게 하느냐 그를 부축하면서 모험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했다. 후자를 택한 그는 넘어진 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간간히 쉬면서 숲과 늪지를 헤쳐 나갔다. 몇 시간 후에 들은 외진 길로 나왔고 드디어 안전지대에 다달았다. 친구에 대한 우의로 그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였고 우정의 힘은 그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갖게 하였다. 그가 바로 요셉 스미스였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다. 그는 교회의 대판장이었으며 정치가였고 실업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조상의 마음을 후손에게 돌리고 후손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리게 하는 회복의 작업을 이루겠다는 그의 소망을 잘 설명해 준다. 회복에 있어서 올바른 신학의 신조는 불가결의 요소다. 그러나 가족과 세대를 연합하므로써 복음의 회복이 요구하는 바 개인과 집단의 영적인 보상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

#### 참 조

이 기사에 소개되는 일화 이야기 및 인용문은 다음 재료에서 발췌하였다. 요셉 스미스 사록, 유타주 팔트레이크시 소재,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기록. 루시 스미스 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전기” (1853년 리버풀 및 런던 출판)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유사” 주베넬 인스트라터 27권 (1892년), 교회 약사 2권 (타모나이 아이오와 1897년), 요셉 스미스 교회사 (6권 팔트레이크시 1901년), 루시 워커 킴블 저 “전기”, 여성 엑스포인트 39권 (1900년) 11월호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일생의 일화”, 영우먼스 저널 16권 (1905년 12월호), 17권 (1906년 12월호), 존, 헨리 에반스 저 “미국 선지자 요셉 스미스” (뉴욕 1933년), 에던 에프 페리 저 “요셉 스미스 이야기” (팔트레이크시 1936년), 레마 시이 베레트, 던 웬그린, 에이스 에스 필킹턴 제씨의 협조에 감사한다.

● “그냥두세요, 어머니. 혼자 해보겠어요” 여섯살 짜리가 구두 끈을 매 주겠다는 엄마에게 한 말이다. 남의 도움이나 협조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성취하겠다는 요구를 아이들은 일찍부터 거의 다 갖는 것 같다.

“엄마 이것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야 해요” 같은 소녀 아이가 이상한 기구, 소위 가위라는 것으로 예쁜 그림을 잘라 내다가 한 말이다. 같은 소녀에게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게 되던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두가지 유형의 제의가 우리 모두에게 제시된다. —자유롭겠다는 요구와 독립하겠다는 요구,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해야하는 필요, 스스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손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권리. 부모와 지도자는 자기 자녀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상반되는 요구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저들의 심정을 이해하여 자녀나 지도를 받는 이들을 때로는 성공의 길로 때로는 실패로 이

끌고 가는 것이 부모와 지도자요 그 역량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 지도자와 피 지도자간의 유대가 형성된다. 자녀나 피 지도자가 이탈하려 하고 경쟁 의식을 들어내며 자기의 능력을 시사하겠다는 상대도 뭇 사람이요 필요할 때 찾아가 협조와 도움을 구하겠다는 대상도 뭇 사람인 것이다. 여하한 지도자나 부모나 감독이나 역원을 막론하고 도움을 요청한 자들을 위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스스로 매사를 바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의 독립심을 일깨우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여기 제인 엔의 예를 들어 본다. 제인 엔은 대학 2학년 생이다. 그는 적어도 일주에 세번은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그가 사겠다고 계획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조언을 요청한다. 그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해야할 때는 어떤지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부모는 이러한 딸의 태도에 흡족하여 자랑스럽게 친구 친지들에게 자기 딸은 순박한 아이요 가족을 극진히 생각하는 아이라고 자랑하고 적어도 자기 딸은 사나운 대학 가시내가 아니라고 말한다. 참으로 이들은 제인이 자주 집으로 전화를 하고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만족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딸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여긴다.

위의 예는 강한 의욕의 발전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명령권을 갖는 사람(이 경우에는 부모)은 피 지배자(딸)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저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평한다면 아마 화를 내며 분개할 것이다. 이유는 이기적이라는 말의 뜻이 갖는, 이를테면 남의 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저들이 딸을 대한 것은 아닐테니까 말이다. 그렇더라도 진정한 뜻에서는 저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딸의 먼 장래를

# 상호 협조 : 가정과 교회의 목표

윌리엄 지 다이어 박사

함께 일함—  
서로 협조하거나  
각자의 능력으로 협력함—  
이것이 상호 협조이다.



깊이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만을 탐한 것만은 사실이다.

의존하겠다는 마음이 지극히 마땅하고 또 유익할 때도 있다. 때때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때를 맞게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남—의사, 선생, 수리공, 친구, 부모 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며 이들의 도움으로 우리 스스로가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의뢰심이라는 것이 고질이 되어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하고 처리하며 손윗 사람과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잃고 남의 능력이나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꼭 남이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딱한 처지에 이르고 만다.

모든 인간은 온전히 남에게 모두를 의존하는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차차 완전한 의존의 상태를 벗어나 발전하도록 하는 책임은 그들의 지도권을 갖는 어른들이 가져야 한다. 자기의 지도권과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남의 발전과 성장을 꾀해야 하겠느냐를 연구해야 하는 임무를 지도자와 지도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가져야 한다.

자주 지도자와 권한 행사자는 잘못된 목표를 고집한다—가령, 부모가 아이들이 의 깎듯한 행동만을 요구한다면 교사 학생들이 반에서 조용하고 선생이 원하는대로 행동하고 말하기를 바란다던가 지도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건설적인 의견이나 불만을 내놓지 않고 다만 “잘되어 갑니다” 식으로 복종해 주기를 바라는 일들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저들에게 고의로 강한 의뢰심을 심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남에게 의뢰심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멍청이 없어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나아가 술선하여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더 필요해”라고 장탄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아이러니다.

또 다른 행태의 모습은 “내일은 내가 하겠다”는 자유롭게 되겠다는 요구이다. 영국의 철인 토마스 홉스와 견해를 같

이하는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그것은 마치 각기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침으로 남을 억누르려는 전쟁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 일이 있다. 만일 인간이 저마다의 요구만을 고집한 채 남의 입장이나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아집의 행사를 발견하며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한다. 어린이는 자기들의 장난감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어 가지려하지 않으며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이 나눠 갖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주변을 뛰어 돌아 다니려고 애쓰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조용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부모가 먹이려는 어떤 음식은 굶이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아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말씀히 먹어 치워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은밀한(때로는 은밀하지 만도 않은) 투쟁은 규제와 다스림 속에 묶어



두려는 어른과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청소년 사이에 부단히 계속되는 것이다. 상호 협조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위에 설명한 투쟁이다. 더러는 규제와 다스림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반항에 사로잡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 저들에게 반항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한다. 이들 젊은 층은 기성 세대가 하는 일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해 내며 스스로 성취될 것을 과신하는 자기들의 예언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세상에 드러내려 한다.

때로는 다스리는 위치의 사람, 즉 부모나 선생이나 직장의 장이나 지도자의 그릇된 시도로 인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물결을 자초하기도 한다. 실제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의 개인적인 권위와 인격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다스림을 구사하려 한다. 세상에는 토론이나 질문이나 기타 타협을 일체 거부한 채 “말 대답없이” 자녀들이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지도 방법은 아주 쉽게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반항 의식을 심어 주기가 십상인 것이다.

어떤 지도자는 의식적으로 의아와 갈등을 암시해 주고는 이를 순종케 하므로서 “누가 다스리는 자”인가를 과시하며 이로써 남을 다스리는 자로의 은밀한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주어진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자를 경계하여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된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권세)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자마자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

이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교성 121 : 37, 39, 40.)

그렇다고 해서 반항이나 반대 세력이 대두될 때 꼭 그것이 다스리는 자의 과오라고 미리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때로는 다스리는 쪽에서 합당하게 다스리고 지도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이 삐뚤어져 있어서 다스리는 쪽의 성의나 방법에는 아랑곳 없이 꼭 부정적으로만 응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모두 자기 쪽의 태도를 재평가하여 새로운 시도를 시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또 가능한 관계는 서로의 장점과 능력을 십분 반영시킨 상호 협조의 관계인 것이다. 자기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이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스림을 받는 쪽의 도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독립 정신만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혹은 가정생활을 토대로 혹은 학교, 교회, 직장, 정부 기구 사회를 토대로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상호 협조가 가능한 독립 정신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상호 협조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복음이나 인간 형태를 다른 저서에 보면 다스리는 자가 받아들여 상호 협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사랑과 관심** 다스림을 받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제쳐 놓고 자기를 인격자로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한 14 : 15)고 하셨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으셨다.

비록 우리가 개인의 어떤 행위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 그것은 무



조건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부모 혹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들고 나온다. 이를테면, “나는 네가 내 뜻에 따른다는 전제 아래 네가 내 지시로 행하고 내게 의지할 때에만 너를 사랑하겠다”는 식으로 이러한 방법의 지도는 반항심을 유발하거나 형편없는 의뢰심을 길러 놓는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와 자리를 함께 하여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지부장은 회원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와 이러한 연결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아무리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함도 나누어야 하며 당장에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지연하면 부정적인 유대만을 기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신뢰**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큰 신뢰와 신임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신임과 신뢰로서 자녀들의 그릇됨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시정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지도자가 아주 엄할 때는 상대방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며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도자는 더욱 초조하여 주변에서 독려하고 간섭하고 짜증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여섯살 짜리가 구두 끈을 허둥지둥 매는 양상으로 일을 몰고 가게 된다.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말일성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저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이로써 저들은 스스로를 다스린다고”(존 테일러, 저널 디스크 10 : 57-58) 상호 협조의 기본 요소는 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일이며 특히 지도층의 사람들이 이를 명심해야 할 줄 안다. 바른 원리를 가르친 다음에는 저들이 이 원리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가져야 하며 그 원리에 규제 받거나 제재 받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3. 숨김 없는 대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숨김 없는 대화라고 본다. 대화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또 양자간의 이해를 포함한다. 상호 협조에서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똑같이 말하고 들을 기회를 갖는다. 그것은 다스리는 자는 늘 말해야 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늘 들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에서 우리는 감정과 사상을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거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인간은 저마다의 견해와 의견을 갖는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이해를 바란다면 쌍방의 견해와 느낌을 충분히 나누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저들의 의견이나 느낌을 자녀와 나누지 않는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휘하는 것이 나누는 일은 아니다. 먼저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며 서로 숨김 없는 대화를 충분히 나눔으로서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가혹할 만큼 솔직하다고 해서 그를 탓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견해를 모두 털어 놓고 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의 복리와 향상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4. 전체의 결정** 상호 협조란 전체가 참여하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기쁘게 협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의

결정이라는 것이 쌍방이 반반씩 양보한 결정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적어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나보다 경험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 결정은 네가 내리려느냐. 네 결정에 적극 협조할테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이 비슷한 제의를 아버지에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쌍방이 참고 협조하는 가운데 필요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5. 협동** 상호 협조란 협동일 수도 있다. 결정된 바를 수행하려면 협동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킨다. 부모는 자기들이 지시하는 바를 자녀가 수행할 때까지 조종하고 규제하며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다. 실제로는 협동해서 계획하거나 일하는 가운데 일을 성취하여 기쁨을 서로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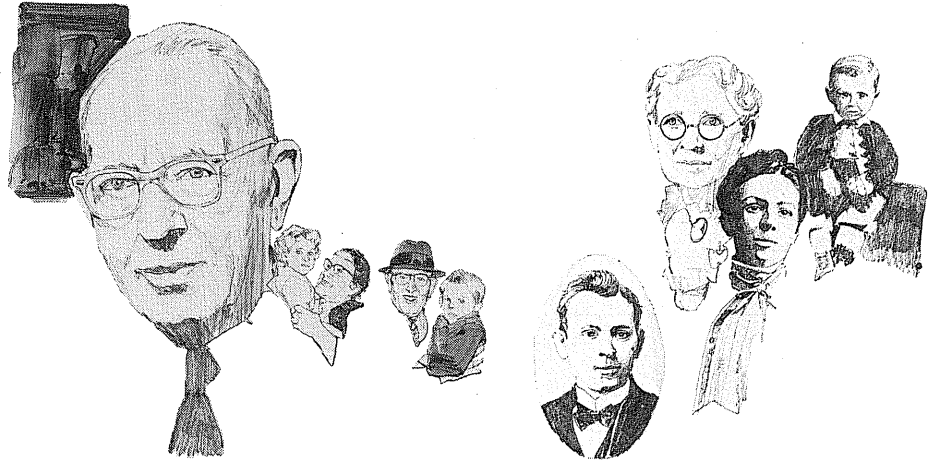
물론 혼자 해야 되는 일도 있을 테지만 수고를 서로 나눔으로서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개인의 위엄이나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 아래 사람과 어울려 일하기를 꺼리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음과 같은 경전의 진리를 통감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 23 : 11)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적인 젊은이들의 반항적인 움직임을 본다. 이들은 반항의 무리이거나 다스리는자와 협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무리일 것이다. 서로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고 협동해서 일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랴도 부모가 허락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협동이란 사랑과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상호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



#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에디스 에스 패트릭



● 구십 사년 전 자상하신 어떤 어머니에게 예쁜 딸 셋이 있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 더 얻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커다란 사랑이 있었고 간절하 기도가 응답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만약 아들을 하나 허가해 주시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네번째 아기, 남자 아기가 탄생했을 때 그녀를 그를 팔에 안고 그 아이가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허가된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기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좇아 조셉 필딩 스미스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 아기는 점점 크면서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인물임을 나타내어 보였습니다.

그는 배우겠다는 욕구가 나면서부터 강했고 처음 글자를 배운 다음에는 열을 내어 읽고 공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채 열 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물문경을 두번이나 읽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월사이 없이 선교 사업의 부름을 받고 돌아 다녔으므로 집을 비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조셉과 그의 형제들은 열심히 일해야 했으며 가축과 정원과 과일 나무를 돌보는 한편 대가족인 집안의 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그의 누이 두분은 뉴욕에 유학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빵 굽는 법 까지도 배워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사냥으로 여가를 즐겼으나 조셉은 야생 동물이라도 죽이는 것을 싫어 하여 한번도 사냥간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였으므로 종종 밤에도 환자의 집을 가야 했으며 그럴 때마다 일인용 마차에 말을 매야 하는 일은 조셉이 했습니다. 그때만해도 전차나 자동차

가 없었으므로 의사를 부르러 오는 사람은 보도로 오기도 했고 말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몇십리씩 와야 했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늘 왕진에 응했으며 궁핍한 사람은 기꺼이 도왔습니다.

마침내 젊은 조셉은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기쁜 마음으로 이행했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후에 그는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사도의 부름에 대하여 그의 모친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셉이 주님의 사업을 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관리 역원직의 형제들이 아들을 사도로 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육십 여년을 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의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많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훌륭한 가정으로 살았고 또 열 한 자녀의 온전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으며 자녀를 바로 가르쳐 장차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요 선지자요 계시자로 지지 받았습니다.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나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계명대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계명대로 살므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는 7월 19일은 스미스 대관장님의 95회 탄신일입니다. 온 세상의 초등협회 회원은 대관장님의 기쁜 생신을 빕니다. ○



● 제이슨 시이 존스는 상감판으로 통하는 층계를 던고 올라가 갑판으로 나갔다. 마침 바다에는 한낮의 햇빛이 가득히 내려 비치고 있었다. 그는 머리 위로 펼쳐진 넓다란 돌을 올려다 보았다. 아침 햇빛이 황금색으로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늘 아침에 구름 빛이 무거웠다. 햇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제이슨은 이민들의 짐 피짜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러면서 배에서 처음 만나 사귄 친구 윌리엄 백스터를 찾았다.

배가 처음 영국의 리버풀을 출항했을 때 윌리엄은 말일성도와 함께 항해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선원들은 말야—” 윌리엄은 한 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배에 너희 교회 사람들이 타면 바다에서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단다.”

오랜 바다 여행을 함께 하면서 윌리엄은 제이슨에게 배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돛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제이슨에게 작은 삼각형 천을 내리게 하기도 했다. 윌리엄은 그것을 집스라고 하기도 했고 스테이세일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 폭풍의 바다

아이리스 신더가드 씀  
제리 하스톤 역

그는 또 선장이 나침판으로 무엇을 하는가도 들려 주었다. “선장은 말야” 윌리엄은 설명했다. “뱃길을 정하고 있어. 바다에는 길이 없거든. 지도로 그래서 설명은 하지만 보이지를 않는단 말야. 그래서 우리는 해나 별을 보고 전진하는 거란다.

오늘 아침 뱃전을 따라 걸으며 제이슨은 물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난간 줄을 잡고 놀라움을 달랬다. 정말 그는 그렇게 높은 파도는 본 일이 없었다. 파도는 마치 푸른 초원 같았다. 푸르고 높은 언덕이 계곡으로 밀려 오는 것 같았다. 물결이 치니까 배는 꼼짝없이 전후 좌우로 몹시 흔들렸다. 제이슨은 똑바로 서있기가 어려웠다. 그는 무서웠다.

그는 무서워졌다.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넓다란 돛은 배의 바깥 쪽으로 쏠려 있었다. 밤잠을 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물결의 위세를 느꼈다. 제이슨은 퍼킨스 부인이 바람에 휘날리는 치맛 자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윌슨씨의 흰 수염은 곤장 앞으로 뻗어졌다. 눈 앞의 정경은 무서웠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아빠가 부라운 선장에게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 제이슨도 따라갔다. 선장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존스 장로님, 일행을 모두 선실로 내려보내십시오.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겁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검은 모자를 두 손으로 앞에 들고 사람들을 선실로 내려 가도록 지시했다. 제이슨은 윌리엄이 갑판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옆으로 지나치는 선원에게 말을 전했다.

그는 윌리엄이 가르쳐 준 것들을 꼼꼼히 생각했다. 한번은 키를 잡는 항해실로 들어가 제이슨에게 키를 맡기기도 했었다. 나무로 된 큰 조종간을 잡고 그 큰 배가 자기의 수중에 몸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이슨은 마치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 배가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 배의 사람들은 그 위험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 했다. 제이

슨은 이제 영국에 정든 집을 두고 솔트 레이크의 새 집으로 가는 노인과 자녀가 많은 젊은 부부들—그리고 바로 전날 태어난 아기—을 염려했다.

제이슨은 윌리엄의 고함을 들었다. “그 밧줄을 잡아 밧줄을 내려야 하는데 도와라!”

그는 곤장 목표 지점으로 달렸다. 그리고는 힘껏 줄을 당겨 당겨 닻을 내리는 작업을 도왔다. 거센 바람이 옷 자락을 날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추위와 흥분에 젖은 그의 몸을 적셨다.

부라운 선장은 조망대 위에 발을 뻗벌리고 선채로 아래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천원 정지!”

제이슨은 그토록 심한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돛의 끝에 달린 밧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일하는 모습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제이슨은 어마어마한 닻이 내려진 것을 보았다. 배는 마치 사나운 말처럼 날뛰었다. 그는 갑자기 선원은 마땅히 선장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배의 안전이 그들에게 달렸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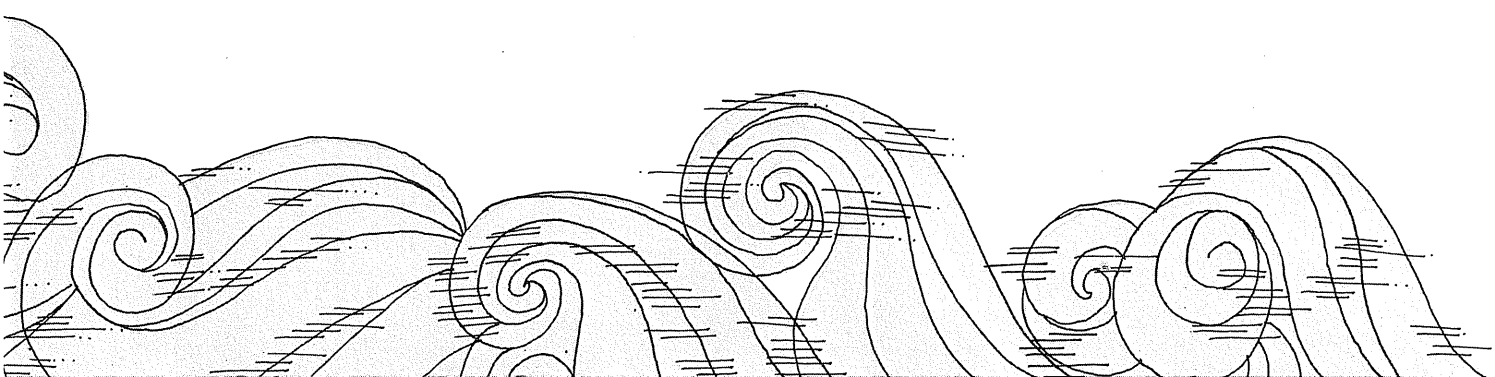
부라운 선장이 제이슨의 어깨를 잡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가서 너의 아버지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해나오!”

제이슨은 캄캄한 하갑판 선실로 내려갔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는 촛불도 켤 수가 없는 것이다. 밀 선실에는 약 사백 여명이나 있었지만 사나운 파도 소리와 뱃전을 때리는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빠를 발견했다. 아빠와 다른 몇몇이 모두 무릎을 꿇고 부라운 선장이 부탁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제이슨은 갑판으로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돛대 꼭대기에 매달려 아직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선원들을 보았다. 도대체 이토록 폭풍이 심한데 어떻게 닻을 더 아래로 내린단 말인가? 마침내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작업을 끝내고 하나씩 줄을 타고 내려와 갑판에 발을 디었다.

갑자기 제이슨은 발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느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아래로 아래로 기울어



저서 다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제이슨은 생각했다. 굉장히 큰 파도가 갑판을 쓸었다. 배가 바로 설 때까지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숨을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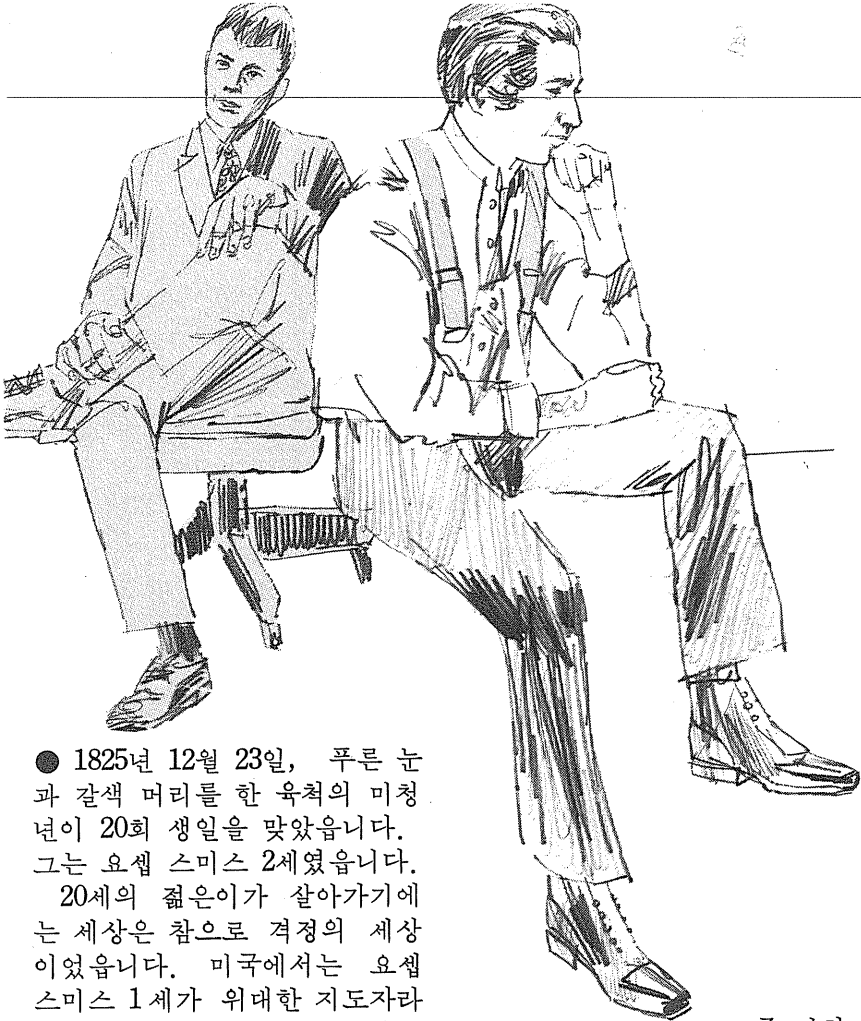
눈에 물을 닦아내고 나서 제이슨은 주변을 살폈다. 부라운 선장은 부동의 자세다. 선원도 마찬가지다. 모두 얼굴에 공포를 담고 있었다. 마침내 사나운 파도는 물러가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난 것이다. 천천히 돛이 올라가는 삐걱 소리와 갑판 아래 선실의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윌리엄 박스터가 안도의 얼굴로 속삭였다. “폭풍은 지났어!”

제이슨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 두분이 갑판으로 올라오셨다. 부라운 선장이 그들 앞으로 갔다.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바다 생활 삼십년에” 선장의 목소리다. “이토록 무서운 폭풍이 이렇게 빨리 잠잠해 지는 건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는 엄숙하게 이렇게 말을 이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





# 청년

## 요셉 스미스

제임스 알렌

● 1825년 12월 23일, 푸른 눈과 갈색 머리를 한 육체의 미청년이 20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 2세였습니다.

20세의 젊은이가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참으로 걱정의 세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셉 스미스 1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흠모하던 앤드루 잭슨 장군이 미국 대통령 첫 출마에서 고배를 마셨고 에리 운하가 개통되어 바야흐로 미국에서의 목화 개발의 성공이라 가장 눈부신 경제적 발전의 기틀을 잡으려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미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강구하던 여러 공화국이 그 첫번 독립 기념일을 경축하고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스가 황제가 되었고 달갑지 않은 외국의 영향력 내지는 간섭에 잔뜩 긴장한 일본은 거의 모든 외국인을 자기 나라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렇더라도 그의 활동과 다루는 문제의 성격은 1970년대의 젊은 말일성도의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 스미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의 어느면과 흡사한가를 살펴 보기로 합시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를 대면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천사와 이야기했으며 물문경의 원판을 보았고 친히 손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가 온전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그에게는 극복해야 할 약점도 많았습니다. 그의 약점 중의 하나는 그의 모친의 말씀대로 가족 중에서 그가 가장 형편없는 악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침대에는 깊은 명상에 빠지기가 일수여서—사람들은 그를 낫 나간 사람이라고 했고—게으르다는 평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 요셉은 유혹을 이길만큼 초연하지도 못했습니다. 후에 서술한 그의 기록에 보면 시현이 있는 후에도 그는 온갖 세상적인 것에 휘말려 들었으며 “자주 말하기에 부끄러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우를 범하여 젊은 사람으로의 약점과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들어내 놓았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28) 그가 그렇다고 “엄청난 죄”를 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그가 말한대로 “그런 죄를 범할만한 속성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랑하고 놀기를 즐기는 성격으로 자기의 “경망함”에 죄의식을 느꼈을 뿐이고 그의 “약점과 미비함”에 대하여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옳다고 느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29 참조) 그러나 그가 17세가 되면서 그는 자기의 심각한 과오를 극복해 낼만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기에 충분한 용기를 얻어 이로써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성과 판단력은 놀라울만큼 발전되고 향상되었습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는 고용주에게 보물을 찾겠다고 땅을 뒤지는 작업을 중지하라는 충고를 할 수 있을 만큼 판단력도 발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월 14불의 급료를 받고 조지아 스톨씨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스톨씨는 뉴욕주 근방의 여러 투기가와 함께 땅에 묻힌 보물을 발굴해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한달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일을 계속했고 마침내는 그 노인에게 땅 파는 일을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내가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1. 잭슨 앤드루 미국 7대 대통령 1767-1845  
2. 니콜라스 1 1796-1855

(요셉 스미스서 2:56 참조)

그가 선지자가 되기는 했지만 어린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경험하였고 젊은이의 문제에도 부딪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회개와 죄 사유함의 교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린 요셉은 일기를 쓰지 않았습다. 그의 이름은 한번도 신문에 난 일이 없습니다. 그밖에 서신이나 기타 기록에도 그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친이나 그를 잘 알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의 여건을 토대로 그의 성년기 초반의 기록을 우리가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버몬트에서 뉴욕으로 옮긴 것은 그가 겨우 아홉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스미스가 수천 다른 뉴 잉글랜드 사람과 더불어 더 훌륭한 농장과 행운을 꿈꾸며 뉴욕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들의 새농장(수백 에이커)은 온통 나무로 뒤덮혔었습니다. 처음 몇년은 벌목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스미스의 자녀는 여덟이었고 생활은 넉넉치 못했습니다. 어린 요셉은 부모의 채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자기에게 부과된, 가족의 부양을 도와야 하는 임무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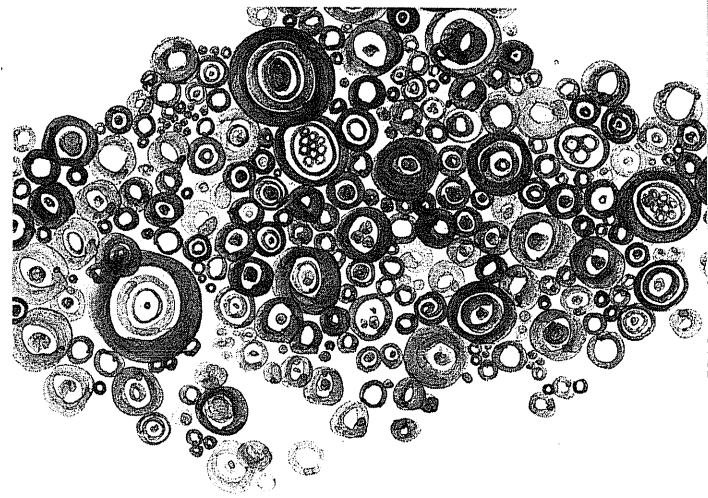
스미스의 온 가족이 뉴욕 농장의 나무를 잘라내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요셉은 나무 자르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나무는 온통 “허리띠”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무 둘레에 허리띠처럼 도끼 자국을 만들어 나무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일단 나무가 죽으면 이를 불태웠고 개척자 가족들은 탄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허리띠를 만들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잘라야 했으며 서 뉴욕 지방에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의 농장은 밀 재배에 알맞았으며 스미스 가족이 대표적인 정착민이었다면 밀 재배를 서둘렀을 것입니다.

농장은 열 식구의 생계를 담당해 줄만한 작물을 즉시 공급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형제들은 열심히 이일저일, 집에서 하는 부업에 협조를 했습니다. 모친이 옷감에 무늬를 그리면 모두를 그 옷감을 여기저기 널었습니다.

이들이 이 농장으로 이사오기 전에 살던 팔마이라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작은 다과점을 열고 빵, 케이크, 간단한 음료수, 파이, 삶은 계란 등을 팔았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그린 카드를 물건 위에 붙이기도 했고 그런 일에 요셉은 힘을 다하여 도왔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집에서 만든 결상, 마당 비, 물통, 조청과 함께 뿔 나무도 팔았습니다. 요셉은 경축일이나 부흥회가 열리는 곳으로 집에서 파는 물건의 배달을 가기도 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요셉은 다른 곳에서 직장을 얻어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옥수수 밭 매는 일, 우물



파는 일, 바위를 운반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그를 고용했던 어떤 이웃 사람은 요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성실이라던가 근면, 친절은 누구에게나 호감과 신의를 샀습니다. 그의 젊은 패기와 유우머도 아마 따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다른 사람들과 친한 친교를 가졌었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이 작업과 고난으로만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에 의하면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여러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변에 있는 모두를 호기심의 눈으로 관찰했으며 스스로 귀찮다고 느껴질 만큼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때로는 인쇄기 옆에 바짝 붙어서 구경하다가 젊은 인쇄공의 장난으로 온통 얼굴에 검은 잉크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유쾌한 성품의 소유자로 유우머의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사심없는 농담으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게 예사였습니다.

젊은 요셉은 운동은 물론 육의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는 틈틈히 운동과 오락 게임을 했습니다. 미국 개척의 촌에서는 당시 힘과 기량을 다루는 레슬링이라던가 발 씨름, 높이 뛰기, 막대 뺏기 등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으며 요셉은 이런 모두에 상당한 실력은 갖고 있었습니다. 막대 뺏기란 두 사람이 발을 마주 대고 앉아서 손을 뻗혀 서로 가로 놓인 막대를 잡아다려 상대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몸집이 크고 운동 신경이 잘 발달한 요셉은 이 막대 뺏기나 레슬링에 거의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그는 낚시질을 즐겼는데 팔마이라 근처 더피의 밀폰드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 사냥도 좋아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숲 속에서 총과 개와 더불어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농가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그도 학업의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버몬트에서 국민학교엘 다녔지만 공민학교 설립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뉴욕에는 공립학교가 없었으며 스미스가에는 자녀를 사립 학교에 보낼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몇몇 이웃 사람의 말을 빌리면 스미스가에서는 겨울 저녁에 집안에서 야학을 열고 식구들과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읽기 쓰기와 셈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웅변을 공부했고 마을 토론회의 열성 회원이었습니다. 그후 그는 언어, 역사, 과학, 정치 등을 공부하여 실력을 쌓았습니다.

정상적인 젊은이의 성장은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이성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가 교제를 한 여자들 중에는 팔마이라에서 180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조시아 스톨씨의 딸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스톨씨 밑에서 일을 한 것이 채 스므살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젊은 요셉도 물론 연애 시절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특히 본받을만한 것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요셉에게서 힘을 잡으려는 무리가 스톨씨의 딸을 데려와 그에게서 요셉의 약점

이 될만한 사실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톨 자매는 요셉의 행동이 공사간에 단정하고 예절바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조시아 스톨씨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후에 그의 아내가 된 아주 특별한 숙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엠마 헤일은 그 지방 사냥꾼인 아이삭 헤일의 딸로 이 두 집은 서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엠마는 베인드리지의 미청년보다 십칠개월이 위였으나 이들은 오래지 않아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로맨스는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의 아버지가 요셉의 시현과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두 사람의 결혼에 반대의 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또 나이도 요셉이 21세, 엠마가 22세로 자의로 결혼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여서 둘은 합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1827년 1월 18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가지 면에서 스미스의 청춘기는 현재의 젊은 남녀의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온 세상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장래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전쟁과 범죄, 그리고 주변 상황의 파괴는 사려깊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생의 목적을 탐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온갖 세상의 문제는 무엇을 뜻하며 찾아야 할 궁극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요셉의 시대의 일상 문제는 오늘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셉의 그 찾아보겠다는 열의는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통찰력, 호기심, 대단한 독서열 등이 시대의 혼란과 함께 그에게 무엇인가를 탐구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십대에 이르면서 종교의 행사는 서부 뉴욕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두번째의 중대한 각성”의 시대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었고 서부에서의 반응은 열렬했으며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교 부흥에 대단한 관심과 열의를 쏟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청춘기는 여러 가지로 혼란하여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문제점과 상통하는 데가 많습니다. 좌우간 그의 시대상이 그를 직접 행동하도록 한 주 원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래도록 앉아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큰 포부를 가졌었으며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학식은 적었지만 더 많이 배워야한다는 간절한 요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젊은이가 갖는 그런 유혹도 받았으나 죄 사람의 산 교훈도 동시에 배웠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요셉 스미스는 친히 건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므로서 교회의 많은 성인 성도들에게 고난과 유혹을 극복하는 산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일진대 우리 모두가 못할 리 없을 것입니다. ○

#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칼라 샌솜

아래 기사는 필자가 십대에 독일에서 겪은 전쟁 실화이다

● 1945년 3월 어느 날, 징집 영장을 받아든 나의 가슴은 납처럼 가라앉았다. 전쟁은 이미 진거다.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함부르크가 고향인 십대의 소녀, 나는 가까운 공군 기지로 가서 사흘 안에 입영 신고를 끝내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체코슬로바키아 깊숙히 위치한 또 다른 전선 기지로 배치가 될 것이다.

부모님은 내게 눈물의 키스로 작별의 인사를 해주셨다. 하나는 러시아로, 또 하나는 공수단으로, 이렇게 이미 두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신 부모님. 아들들에게서는 아직도 한마디 소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뿐이다.” 내게 전해주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내 가슴은 터지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내가 살아서 다시 부모님을 뵙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살얼음같은 세월! 공습과 포격이 치열한 틈새로 기차를 타고가 공군 기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만 해도 기적이라고 할 일이다. 그 기적은 일어났다. 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여행은 길고 지루한 여행이었다.

내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기지에 도착했을 때 흰 머리털의 선임 하사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젠 숫재 아이들을 뽑아 보내는구나! 제길할, 너는 집에서 어머니 심부름이나 하지 그랬니? 소련놈들이 아주 바짝 쳐들어 왔는데 도대체 넌 알고 있지? 그건 그렇고, 네가 할만한 사무직이 없단 말이다.”

정말 소련 군대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줄을 지어 마을을 지나 는 독일 피난민 떼가 그걸 증명해 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루밤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어야 했다. 그렇게 3주 동안을 굶주리고 지쳐 병든 소련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색이된 피난민 떼가 지나쳐 갔다. 개중에는 맨발로 걷는 사람도 수두룩했다. 이들은 통통 부어오른 발을 이끌고 동풍을 헤치면서 눈발을 전진해 가고 있었다. 끝없는 갓난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호의 손을 폈지만 우리의 준비는 그토록 큰 재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4월에 해빙이 시작되었다. 날씨는 아직도 매웠지만 봄의 향내는 온 하늘에 차 있었다. 하루는 선임 하사가 온통 흥분한 표정으로 나를 가까이 불렀다. “방금 정보가 들어 왔는데 소련군이 코 앞에까지 쳐들어 왔단다. 너의 귀향 조치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너는 함부르크로 돌아가라. 애초에 너는 이곳으로 보내지지 않았어야 했다. 오늘 출발해라. 그래야 소련놈의 포로를 면한다.”

나는 프라그로 떠나는 마지막 민간 열차에 탔다. 자리라고는 화물차 뒷칸, 그것도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으로 꽉 들어찬 속이다. 나는 저들이 내가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가봐 겁이 났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나는 한 사람씩 둘러보았다. 아무도 부드럽게 답례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좀 구석진 대로 가려고 움직여 봤지만 무지막지한 체코인들의 장화끝은 한치도 움직여 주지를 않았다. 다만 질식시켜 버리겠다는 기세로 뜨거운 마늘 입김이 얼굴로 목으로







Glen S. Hopkins

물려올 뿐이었다.

기차는 자주 정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움직였다. 한밤이었는데도 쌓인 눈으로해서 세상은 한낱처럼 밝았다.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은 말수가 적었다. 그저 눈으로만 대화를 한다. 그러다가도 이야기를 해야할 때는 급히 흥분한 어투로 지껄이고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짐차로 내게 눈총을 모으는 저들의 예리한 눈빛을 나는 알아차리고 말았다. 갑자기 나는 내가 난간 끝으로 밀쳐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동정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저들의 눈총은 싸늘했다. 나는 비로서 깨닫기 시작했다. 저들은 달리는 열차에서 나를 밀어내기로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었고 나를 처치하므로써 이 세상의 자유를 위하여 독일인 하나를 더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토록 혼잡한 속에서 나 하나쯤 밀쳐버려야 대수롭지 않은 사고사로 정리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런 일은 늘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은 아무도 진상을 캐내지 못할 것이고.

내 눈은 거칠어 보이는 어떤 젊은이에게로가 멎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해 “너는 독일인이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난간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는 나의 친구가 될 사람을 찾아보았다. 모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기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중심을 잃고 한 쪽으로 우르르 물려갔다. 나는 누군가의 가슴으로 밀려갔다. 억센 팔이 나를 잡아 세웠다. 나는 그 큰 사람을 올려다 보고 “고맙습니다”라고 체코 말로 중얼거렸다. (적어도 얼마 더 쫓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덤덤히 허공만을 노려 보았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기차가 전투에 기진맥진한 독일군을 싣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말할 수 없이 지친 독일 육군이 쏘련군의 대포가 노리는 전선으로 가는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지나가는 기차의 마지막 칸이 사라질 때까지 그 쪽을 노려보고서는 이를 갈았다. 그 기차에 실린 독일군은 쏘련군 대포의 잇빨이 노리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 후로는 아무도 내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

프라그의 기차 역은 온통 수라장이었다. 흥분한 군중이 부산을 떨며 주변을 맴돌았다. 얼마 후 독일군 역전 파견대에서 전투 요원 기차 이외에는 독일로 돌아가는 기차가 없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나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묘안이 없었다. 쏘련군은 이미 목전에 임했고! 나는 기차역 구내를 이리저리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들었다.

별안간 나는 군용차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들었다.

“처녀! 어디로 가슈.”

“독일로 돌아가려는데 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나는 목이메어 대답했다.

“이 기차가 독일행인데, 우리 한자리 마련하고 아까씨를 숨겨주지.”

들창 밖으로 여러 개의 팔이 내밀어지더니 나의 손을 잡아 그대로 들창을 통해 나를 안으로 끌어 들였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자리는 별로 편치 않을테지만 여럿이 가는데 하나쯤은 언제라도 더 끌 수 있는 법이니까.”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는 좀 불안하게 물었다.

“모르오 적어도 이곳은 빠져 나가는 것이니까!”

그들은 내게 비좁은 창 옆자리를 내주었다.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았던들 나는 숨이 막혔을 것이다. 기차가 어느 때라도 멎으면 곧 군인 외투로 나를 덮어 숨겨주겠노라고 군인들이 친절하게 나를 안심시켰다. 기차는 몇번이고 멈추어야 했다. 적기의 공습이 있을 때마다 나무 그늘이나 굴을 찾아 대피해야 했으니까. 내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냄새나는 군인 외투 밑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었다.

드레스덴의 외곽 지대까지 거의 열 여덟 시간을 나는 그렇게 기차에 시달렸다. 드레스덴에서는 본 역이 폭격으로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간선역을 연결해야 했다. 사병은 온통 폐허와 폐허의 연결일 뿐 그외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참으로 폐허의 그 드레스덴이 한 때는 바하나 모짜르트가 명성을 날리던 도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드레스덴에서 나는 또다시 외톨로 남게 되었다. 그때의 그 혼란! 적십자 요원들은 정신없이 부상자와 아이들을 운반하고 있었고 군대 차량은 전속력으로 이리저리 질주하는 판이다. 도대체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주고 받을 만한 처지가 못되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소리질렀다. “웅덩이로 몸을 숨겨! 곧 공습이 온다.”

또다시 절망의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목적없이 걸어나가면서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상한 힘에 압도되는 것을 느꼈다. 그

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팔이 나의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다. 몇분 지난후 군인 트럭이 내 옆을 질주해 가다가 저만큼 앞에서 급정거를 하더니 내가 서있는 곳으로 후진해 왔다.

“어이 아가씨 태워드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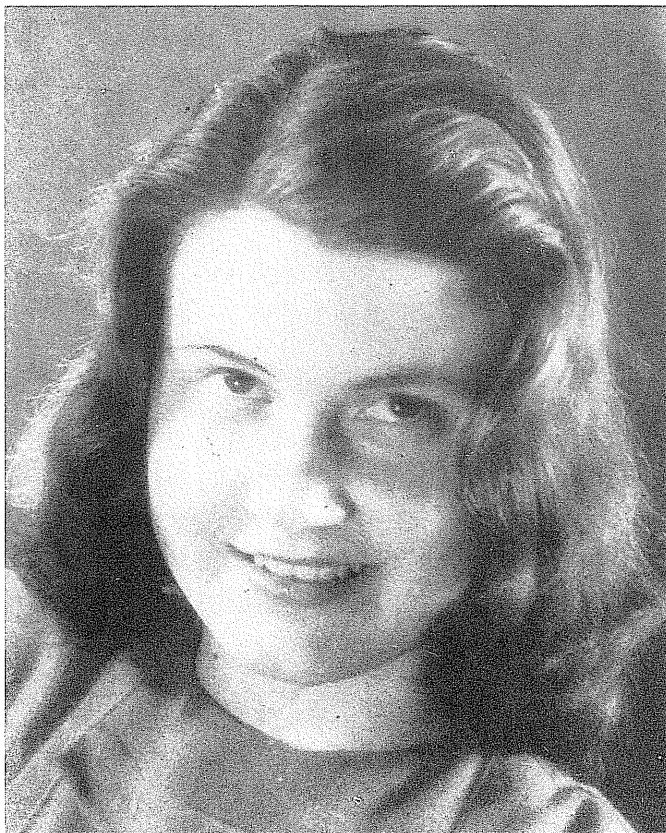
“네. 그래요! 기차 정거장, 그러니까 지금도 기차가 닿을 수 있는 역으로 가야 해요!”

“올라타! 하나 찾아 주지.”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이내 역과 기차와 화물 객차가 보이는 곳으로 왔다.

“이 기차는 군 전용인가요?” 그 근처에 서있는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가씨는 여기 어떻게 왔지?” 나는 증명서를 내 보였다. 그는 동정의 눈으로 나를 내려다 봤다. “믿을 수가 없군” 그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이 나라의 운명도 다한 것이지? 자,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대위는 장교들이 서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잠시



자기들끼리 의논을 끝낸듯 그는 내게 오라는 손짓을 했다.

“우리는 지금 베르린으로 가는 길이야. 말하자면

전선으로, 알겠나 전선. 쏘련놈들이 이미 포스담에 접근했거든. 아가씨는 기차 탑승이 허락되었어. 우리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는 또다시 통조림 생선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것도 서서 그 긴 여행을 감당해 낼 수 밖에. 이리 물리면 이 쪽 한 발로, 저리 밀리면 저 쪽 한 발로 서서. 어떤 군인이 딱딱하게 굳은 군용 빵 한조각을 전해주었다. 그것도 꿀맛이었다. 사흘만에 처음 먹는 음식이었다.

하늘엔 온통 기차를 노리는 비행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또다시 터널이나 숲에서 공습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숲이나 터널을 찾자니 때로는 오던 길을 되돌아 가지 않을 수도 없어서 참으로 그 여행은 끝까지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여행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했다. 우리는 도처에서 솟아오르는 화염을 보았고 잠시도 그치지 않고 들리는 포성을 들었다.

마침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내 발은 말할 수 없이 부어 있어서 통 감각이 없었다. 군인들은 별집을 쭈셔논듯이 총을 앞으로 겨누고 내닫고 있었다. 우리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들어온 것이다. 소음이 모두를 삼켜버릴 듯한 기세여서 사람의 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일 것 같아서 나는 목적없이 걸어 나갔다. 극도의 피로와 두려움이 나를 휘감았다. 그때 누군가가 내게 소리를 쳤다. “베르린까지 가겠나? 그 근처 지하철 정류장에서 내려주지.” 돌아다 보니 그 대위였다. 그 친절한 대위.

베르린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 보았다. 그것은 필경 지구는 아니었다. 어떤 우주의 혹성이 이제 막 창조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같았다. 색채라던가 생명의 빛은 없었고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은 지하로 내려가 있었다. 땅 밑에서 나는 인간의 지친 무리를 보았다. 저들의 눈에는 절망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어린 아이들의 표정도 인생을 살만큼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듯 했다. 나는 거의 기계적으로 전진해 갔다. 누군가가 내 여행 가방을 날치기 해가려 했다. 나는 마치 그 속에 내 생명이라도 담고 가듯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 잡았다.

“아직 베르린을 떠나는 차가 있습니까?”

“처녀, 혹시 돌지 않았오!” 사람들이 나를 톡 치면서 대답했다. “베르린은 온통 쏘련군에게 포위되었는데 아 시베리아라도 가려구?”

나는 모두를 포기하려 했다. 피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정말 나는 완전히 기진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또다시 나의 어깨를 감싸는 눈에 안보이는 어떤 힘을 느꼈다. 아직도 몇몇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나는 레테르 반호프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때 무엇인가 강력하게 나에게 다른 방향의 지하철을 타라는 지시를 했다. 나는 그 다음 지하철 역으로 갔다. 그것이 북 쪽으로 가는 것인지 남 쪽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가는데 앞에 정거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한 가운데 기차가 보였고 둘러선 사람들은 민간인이었다!

“기다려요!” 나는 고함을 질렀다. 기차가 금방 떠난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차로 돌진했다.

“저—이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함부르그”누군가가 대답했다.

“함부르그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나는 애기 어머니와 아이들이 타는 칸에 자리를 얻었다. 보온병에 담긴 우유를 내 손에 따라주는 사람이 있었다. 아 세상은 아직도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구나!

기차가 떠나기 전 세 시간—그렇다 지루하고 혼동된 세 시간을 나는 차 속에서 기다려야 했다. 기차가 폭격을 맞으면 어쩐다? 쏘련놈들이 또다시 포위해 온다면? 최악의 사건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기차는 시골 길을 천천히 달려 나갔다.

멀리서 간간 폭격 소리가 들려왔다. 땅에는 포연이 자욱했고 여전히 기차는 전폭기의 공습을 피해야 했다. 나는 함부르그에 폭격이나 기타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마음으로 기원했다. 나의 집이 날라가 버렸으면 어떻게 한단말인가! 아니 부모님께 불행한 일이 있어도 안된다! 그러나 마음의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이 그분들의 평안을 내게 확신시켜 주었다.

기차의 전진은 굼뎡이처럼 느렸다. 보통 하루가 걸리는 길이 이틀에야 닿는다. 기차는 함부르그 근처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 정거를 했다. 거기가 종점이었다.

“엘브 다리가 끊어져서 기차가 더 못갑니다” 군중 틈에서 소리만 들렸다. “함부르그까지 가는 사람은 걸어야 해요!”

“강은 어떻게 건너지요?”

“작은 다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떼를 지었다. 젊고 힘이 센 사람들이 병약자와 부녀자를 도왔다. 여러 떼의 사람들

이 각각 목적지를 향해 흩어져 갔다.

“숲이나 개울을 끼고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일행의 등에다 대고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함부르그 외각 이십 오 킬로 지점에 있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이십 오 킬로가 나의 여정에서 가장 고된 것이었다. 나는 지친 몸을 필사적으로 앞으로 끌고 갔다. 우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는 나 홀로만 남게 되었다. 엘브 다리는 마치 거인이 한 다리는 하늘로 향하고 한 다리는 물을 짚고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폐허가 휩쓸고 간, 그러나 내 눈에 익은 옛 고향 땅은 나를 감격하게 했다. 길게 사이렌이 두번 울렸으나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간단히 해제되었다. 한번은 폭탄이 떨어진 웅덩이에서 공습을 피했고 한번은 허물어진 집 속에서 피했다.

나의 고향 함부르그에도 오직 파괴와 살벌함이 남아 있었다. 전쟁은 온통 함부르그의 옛 모습을 앗아 가고 말았다. 나는 신을 벗어 들었다. 발이 너무 부어서 신을 수가 없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오킬로, 삼킬로, 한 골목만 접어들면 나의 정다운 옛 집이 서있는 던크스가다. 나는 골목을 돌아섰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멈춰섰다. 온 몸이 떨렸다. 다시 탄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눈을 떴다. 쿨뚝이 달빛에 보였다. 집이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소리내어 감사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찌 되었을까? 나는 숨이 턱에 차서 달음박질했다.

“안에 누가 있어요? 나예요. 문 열어 주세요. 나예요. 문을, 문을 열어요. 나예요!” 주변은 조용했다. “누가 있어요? 문 열어 주세요. 나예요.” 그러자 천천히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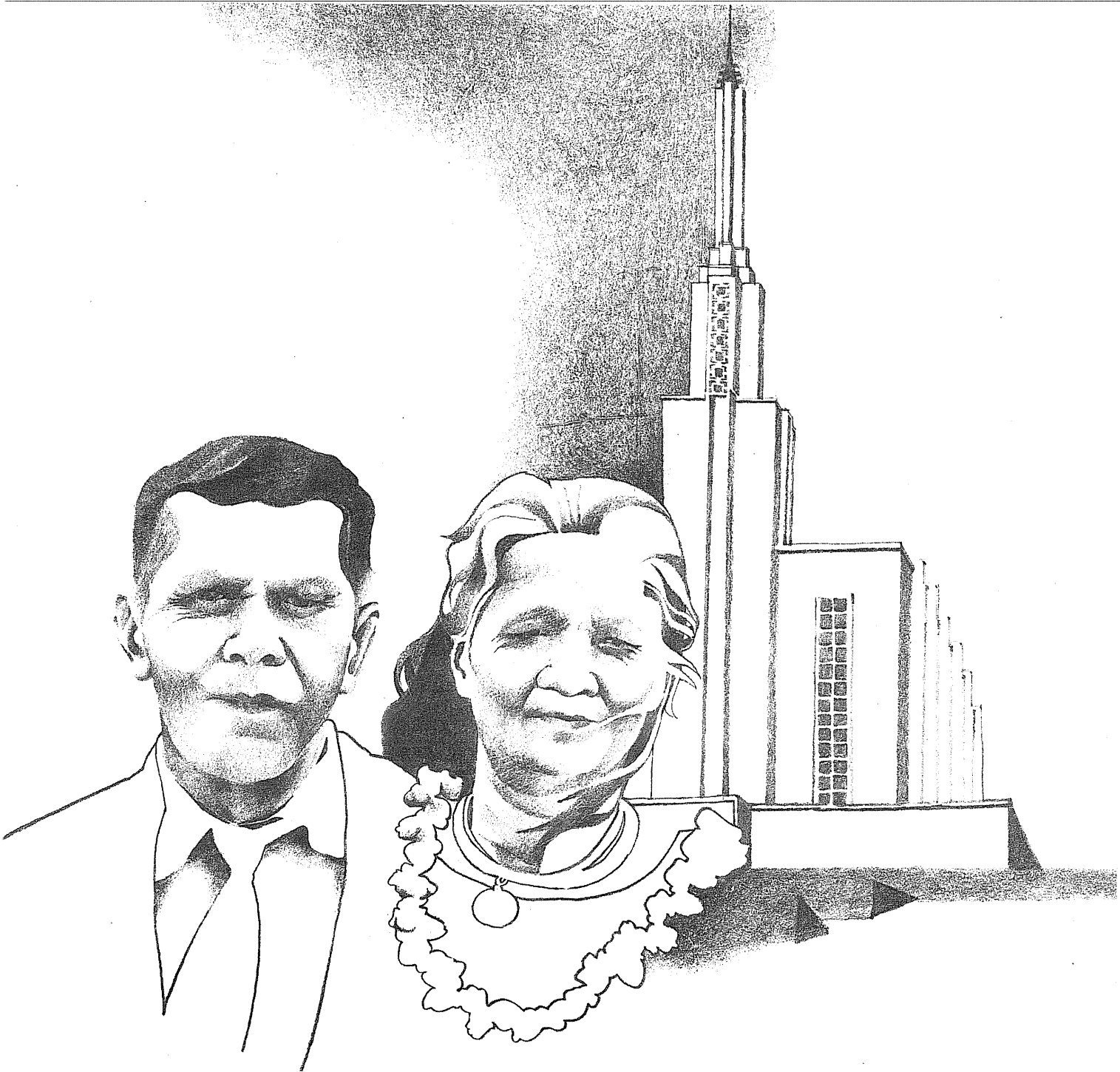
“누구요?” 아버지가 문을 여셨다.

“아! 칼라! 네가 왔니? 마마! 마마! 일어나요! 딸이 돌아 왔어요!”

두분이 함께 문으로 뛰어 나오셨다. “난 꿈인줄 알았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는 서로 끌어 안고 불을 맞추며 서로 통곡하면서 한데 비볐다.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이다.

“우린 밤 낮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고 이웃도 함께 기도해 주었던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그 눈에 안보이던 보호의 팔이 헛된 환상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



## 테리오테마나와

### 퓨나

돈, 진 마살

● 타히티 섬에서, 붉은 세타를 입은 부인 하나가 일터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굽었고 한쪽 눈마저 보이지 않았으나 판다누스 줄기로 광우리와 모자, 돛자리를 짜는 그녀의 솜씨는 익숙했다.

하루 이틀에 익숙해진 일이 아니었다. 팔십 평생을 일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굳고 질기고 딱딱한 나무 줄기를 다루는 일에 익숙한 손이 되었고 그녀의 솜씨는

놀라울만큼 훌륭해졌다. 그녀의 손길은 늘 분주했다. 일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녀는 엔다우먼트와 인봉과 대리 칩레를 갖는 신전이 있는 땅, 뉴질랜드 행의 세번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테리오테마나가 응달진 가구상에 앉아 광우리와 가공품을 팔며 한푼한푼, 먼 저 마오리의 땅, 아니 주님의 신전이 서있는 땅으로 가는 여비를 준비하는 까닭인 것이다. 그녀가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일을 하는 동안 그녀의 남편 푸나는 또 한 쪽에서 자기들의 계획은 수행해 갔다. 그는 야채 밭, 토마토 밭을 매며 파를 가꾸며 그것을 걸우어 팔아 여행 기금에 보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났다. 광우리를 만들고 야채 밭을 매는 동안, 한푼한푼의 돈은 불어 났지만 아주 조금씩 불어났다.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을 서로 열고 머리맡에 걸어 두었던 양말을 내려보는 날 테리오테마나와 푸나는 오랜 숙원이던 뉴질랜드로의 여정에 올랐다. 이들은 마치 꿈을 꾸듯 걸어 나갔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겨리는 낮선 소리, 귀에 익은 일행이 서로 주고 받는 타히티 말소리, 이들은 모두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성탄일에 신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63년, 신전에 첫발을 디딘 타히티 일행은 보름 동안을 아침 여섯시부터 밤에 신전 문을 닫을 때까지 신전에 들어가 신전 사업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2,300마일의 긴 비행기 여행을 끝내고 타이티에 돌아간 다음에는 자기들의 꿈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테리오테마나에게 만은 의미가 달랐다. 그에게는 그 첫번 여행이 시작이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신전에서의 모든 의식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머리 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 빛나는 경험은 그녀의 두브아이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오래 두고 기억되었다. 그녀가 파피트의 새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내려 다른 성도에게 작별의 인사를 나눌 때,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면서도 그녀는 그 환송이 거듭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의 그녀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였다.

“내년에 우리와 함께 다시 가시겠습니까?” 토마스 아아르 스톤 선교부장님이 그녀를 비행기에서 부축해 내리며 묻던 말씀이다. “내년이라, 내년, 내년” 그 내년이란 말이 머리 속을 맴돌며 불가능이라는 그림자를 그려 놓았다. 그토록 오랜 세월의 수고가 어떻게 일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다음에는 건강도 문제가 된다. 아니 내년까지 살게나 될런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힘만 주신다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부장이 그녀에게 대답해 주셨다. 그 선교부장의 대답과 하나님께 약속한 자기의 결심은 그후 18개월을 두고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1965년 7월에 뉴질랜드로 떠나는 타히티 성도의 여행이 결정되었다. 이 때를 목표로 테리오테마나는 열심히 광우리를 만들었고 푸나는 밭을 갈았다. 그러나 그 해에는 흉작이었고 푸나의 허리는 점점 약해졌다. 이들은 기르던 돼지를 모두 팔고 파피트로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푸나는 칠십 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을 찾았다. 마침내 그는 선창가에서 임금이 아주 적은 직장은 얻었다. 임금은 낮았지만 조용히 앉아서 손만 놀리면 되는 일이었다.

테리오테마나는 열심히 손을 놀려 꾸부리고 비틀고 매고 하면서 광우리, 모자, 돛자리를 짰다. 때는 점점 가까워 왔다. 두번째로 신전을 찾는 타히티 성도를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때까지도 일손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금은 부족했다. 선교사들이 얼마를 회사해 주었고 테리오테마나의 마디 굵은 손으로 일해서 갚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 작업만 계속되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예정대로 이륙했을 때 그 안에는 테리오테마나와 푸나가 함께 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생명과 힘만 주신다면”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테리오테마나는 몇번이나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비록 그가 살아서

## 기억해야 할 생일

● 신전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전 일입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신전 정문 수위실에서 뭘 좀 읽고 있자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밖에는 여닐곰 먹어 씹는 작은 아이들 둘이 서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았더니 옷 입은 뱀씨가 어른들이 해준 것 같지는 않았고 부모들보다 일찍 일어나 저희들끼리 옷을 주워 입고 달려 왔다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머릿도 빗지 않은 채로 었습니다. 그 아이들 뒤로 유모차에 갓난 아이 둘이 실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앞에 서있던 아이가 뒤 유모차를 가르키면서 ‘이 애는 조예요, 조와 악수해 주시겠어요? 오늘이 꼬마 조의 생일이죠, 두살이 되어요’ 그리고는 경건하고 엄숙한 표정이 되더니 ‘오늘 조에게 신전을 만져보게 해주려고 왔어요, 이 다음에 조가 어른이 된 다음 자기가 두살 때 신전을 만져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는 유모차에 있는 또 다른 아이를 가르키면서 ‘이 애는 마크라고 그래요, 애도 두살이죠’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자못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저 아저씨 이젠 신전을 좀 만져도 되요?’ ‘그러렴’ 나는 선선히 응락했습니다. 아이들은 유모차를 신전 앞으로 끌고 가서 갓난 아이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갓난 아이의 손으로 신전 벽을 만지게 했습니다.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서있는 내게까지 동생에게 이르는 그 아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 조! 네가 두살에 신전을 만졌으니까 늘 기억해야해 응!’ 그들은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럴드 비이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일보좌  
1957년 4월 대회

뉴질랜드로 가고는 있었으나 이미 실명이 된 눈이나 점점 더 악화되는 등이나 파피트의 의사를 자주 찾아갔던 일, 엑스레이 결과 등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테리오테마나는 신체의 무엇인가가 고장이 났음을 알았다.

신전의 내부는 테리오테마나에게는 낯 익었다. 복도와 계단의 모습은 그녀에게 소중한 추억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도가 더 침침했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무거웠다. 테리오테마나는 병이 난 것이다. 타히티의 스톤 선교부장에게로 그녀의 묘지 사정과 수술을 받아도 되는가를 묻는 전보가 급송되었다. 스톤 선교부장은 즉시 수술을 하라는 전보를 보냈다. 그곳에 남았던 타히티 성도들은 함께 금식 기도하였고 곧 그녀를 위한 축복이 행해졌다.

테리오테마나에게 그후 이들은 감감한 것이었다. 이상한 방, 붕대, 흰 옷의 간호원, 정결한 시트를 만지는 그 친절한 간호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타히티어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때 침대 곁에 서있던 타히티 지역 관리 선교사 마로 케이 애쉬튼 장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지난 이틀 동안에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을 들려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친구의 금식과 신앙과 기도가 그녀의 신앙과 합쳐져서 기적을 이룬 것이다.

테리오테마나가 집에 돌아올 수 있을만큼 건강을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19일이 지난 후였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날을 타히티 성도와 보내고 예정대로 타히티에 돌아왔다.

몇해가 지났다. 테리오테마나는 또 다른 병을 앓았으나 신권의 권세로 치유되었다. 머나 먼 신전이 서 있는 섬으로의 여행을 감당할 만큼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나눈 자신의 약속과 그에 따른 축복을 생각했고 친히 체험한 기적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명과 힘을 허가해 주시는 한 그녀의 부지런한 손가락은 판다누스 줄기로 열심히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

# 끝까지 견딤

서 헌 보



● 한국에서의 임기가 끝나 선교부장으로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쓰자니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3년을 회고하여 볼 때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우정과 사랑, 여러분의 성실과 협조, 여러분의 복음에 충실한 태도, 교회의 성장 및 발전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과 가족을 대표하여 여러분이 3년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사랑, 깊은 사의를 포함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로 생활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견딤”이라는 제목도 이런 이유에서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직시하고 영원한 복음의 원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성장과 발전으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여 줄 위대한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쇠막대를 잡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값진 진주, 모세서 7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듯이 쓸어내게 하여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 이는 나의 백성이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함이니, 거기에 나의 장막이 있을 것임이라 그 곳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 첫째는 우리는 땅으로부터 보내진 진리 즉 물몬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야말로 주님이 말일에 보내주신 진리임을 간증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매일 이 책에 담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며 기도해 주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자주 읽으십시오.

두번째 진리는 주님이 땅의 사방에서 그의 택한 자를 모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여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은 그의 택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여러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따져 볼 때 우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택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를 깨달아 그분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 홀로 있을 때라도 자신은 선택받은 자의 하나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고 행복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 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참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걸지 아니하시며, 바른 쪽으로나 왼 쪽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고치시지도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곧고 그 나아가시는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또는 그 누가 그분의 계명이나 구원과 승영의 계획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하여도 이는 주님의 일을 막거나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방향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굽은 길을 걸지 말며 오른 쪽이나 왼 쪽으로도 가지 말고 주님이 정하여 주신 곧은 길을 교회의 표준 성전에 주어진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니파이의 쇠막대로 삼아 걸으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바이며 우리 모두가 구세주의 가르침과 권고를 따라 생활하며 그분의 선택받은 자로 끝까지 견디어 종말에는 영생과 구원이 있는 왕국에서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